양귀비, 비닐하우스서 재배

신안 임자면 주민 11명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18일 양귀비를 대량으로 밀경작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65·신안군 임자면)씨 등 낙도 주민 11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임씨는 자신의 텃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양귀비 200그루를 재배하다 17일 오후 해경의 특별 단속에 적발됐다.

임씨 등 적발된 농민들은 대부분 섬지역에서 홀로사는 노인들로 비상약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그루 이상씩을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경은 비닐 하우스를 이용할 경우 적발이 어려워 대량 재배가 가능하다고 보고, 마약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을 캐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비닐 하우스 대량 재배를 막기 위해 오는 7월 21일까지 신안, 진도, 영광 지역 낙도와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밀경작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EBS교재 선정 과정 금품수수 의혹 수사

EBS 수학능력교재 총판업체 선정 과정에서 EBS 임직원들이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EBS 문화사업팀장 박모(47)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또 다음주까지 국장급 임원 등 관련자 4~5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밝혀지면 배임수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들은 EBS 교재 출판 관련 업무를 맡았던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 등 전국 7개 총판권자로부터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며 EBS 임직원 5명에 대한 계좌추적을 벌여 업체들로부터 수상한 돈뭉치가 이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또 EBS 직원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회사 간부들에게 상납된 흔적도 잡아냈다.

EBS는 2003년부터 1년 단위로 지역 총판을 선정해 판매를 위탁해 왔으며 총판업체들은 전체 매출액의 10~15%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BS 교재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한 2004년부터 110여개 총판업자들간 총판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돼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80년 5월 사진 속 '주먹밥 아줌마들'

"시장 상인들 모두가 한 일"

80년 5월, 어수선한 좁은 골목에서 허리를 숙여 밥을 짓던 강삼자(여·당시 40)씨. 오른손에 밥주걱을 들고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던 하문순(여·〃 32)씨의 모습은 광주 대인시장을 취재하던 광주일보(당시 전남일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주먹밥을 만들던 두 여인의 사진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에 맞서 '하나된 광주'를 상징했다. 하지만 군사정권 하에서 잊혀졌다. '광주사태'가 '민중항쟁'으로 바뀐 후, 두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은 숱하게 있었지만 지금껏 만날 수 없었다. 급박했던 상황 속에서 취재기자가 주먹밥을 짓던 장소를 대인시장이 아닌 '양동시장'으로 잘못 보도했기 때문이었다.

통한의 세월이 흘러 잊혀질 만도 한데 광주시민의 연대를 상징하던 두 사람이 '세상'에 나왔다. 광주일보가 5·18 26주년을 맞아 재래시장을 샅샅이 뒤져 광주의 '어머니'를 찾아냈다.

학생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줬던 강씨와 하씨의 이마에는 어느덧 깊은 주름이 잡혀있었다. 탱탱하던 손도 쭈글쭈글해졌다. 2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인시장 한 켠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 때 그 얼굴 5·18 광주민중항쟁 때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줬던 강삼자(66·왼쪽)씨와 하문순(58)씨가 26년만에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래는 80년 당시 광주일보에 보도됐던 사진. 가운데 주걱을 든 사람이 하문순씨이고, 맨 오른쪽이 강삼자씨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본보 26년만에 찾아내 대인시장서 30년째 장사

"포상이나 보상 없어도 그 때 생각하면 뿌듯해"

강씨와 하씨는 아직도 "5월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80년 5월22일 대인시장 입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계엄군을 피해 학생이 시장 골목으로 뛰어들어오자 군인 3~4명이 뒤쫓아와 구타하기 시작했다. 몽둥이로 머리를 때리고 군화로 허벅지를 밟아 짓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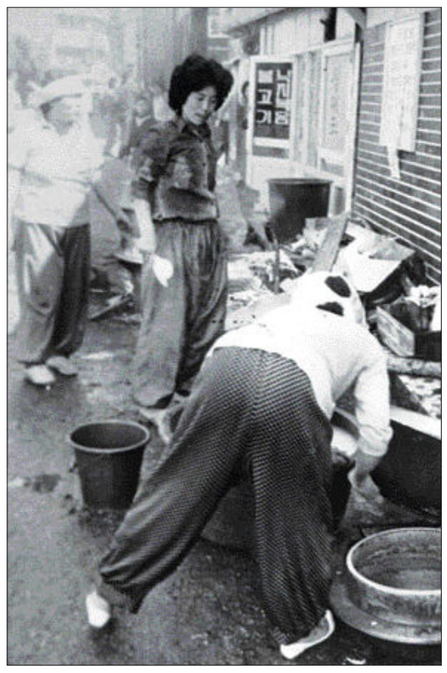
"왜 학생들을 때리느냐"며 말리자 "××년" 등 욕설이 터져나왔다. 계엄군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면서 최루탄을 던졌다. 무섭기도 했지만 자식 같은 학생들이 무자비하게 맞는 모습을 보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 대인 시장을 돌며 "먹을 것이라도 만들어주자"며 다른 상인들과 함께 돈을 걷었다.

모두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천원·오천원 등을 모아 당시 한 가마니에 2만 5천원 했던 쌀을 세 가마를 사 주먹밥을 만들었다. 그리고 시장 입구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건넸다. 음료수와 막걸리 등도 함께 보냈다. 주먹밥이라야 기름에 밥을 볶아 소금을 뿌려 김에 싼 정도였지만, 학생들은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도 생각하면 무섭지. 누가 밥해줬다고 군인들에게 신고하면 잡아갈까 싶어서 몰래 만들었어. 한 곳에서 만들면 들킬까봐 시장 네 군데에서 밥을 만들었지. 대인시장에서 30년 이상 장사한 사람들은 다 알아. 전부 다 같이 했으니까."

올해 66세가 된 강씨는 여전히 시장통에서 '대인야채'라는 상호의 채소가게를 한다. 하씨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과일장사를 하고 있다. 포상이나 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 주먹밥을 받아갔던 학생들 중 몇 명이 이따금 시장을 찾아올 때면, 행복하고 가슴 뿌듯하다"고 두 사람은 말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유아·초등생 '수두' 주의보

질병본부 "12~15개월 된 소아 예방접종을"

질병관리본부는 18일 최근 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수두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본부는 소아전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결과, 5월7~13일을 기점으로 전국 180개 소아과의원에서 보고하는 수두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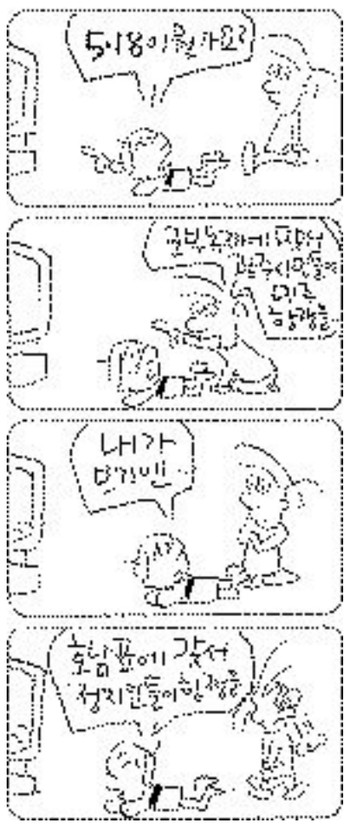
광주 동구보건소도 지난달 16일부터 수두환자가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수두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개인위생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생후 12~15개월 된 소아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수두는 말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이나 신체 접촉만으로도 감염되는 등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환자는 수포 발생후 5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집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참 〈6832〉 김종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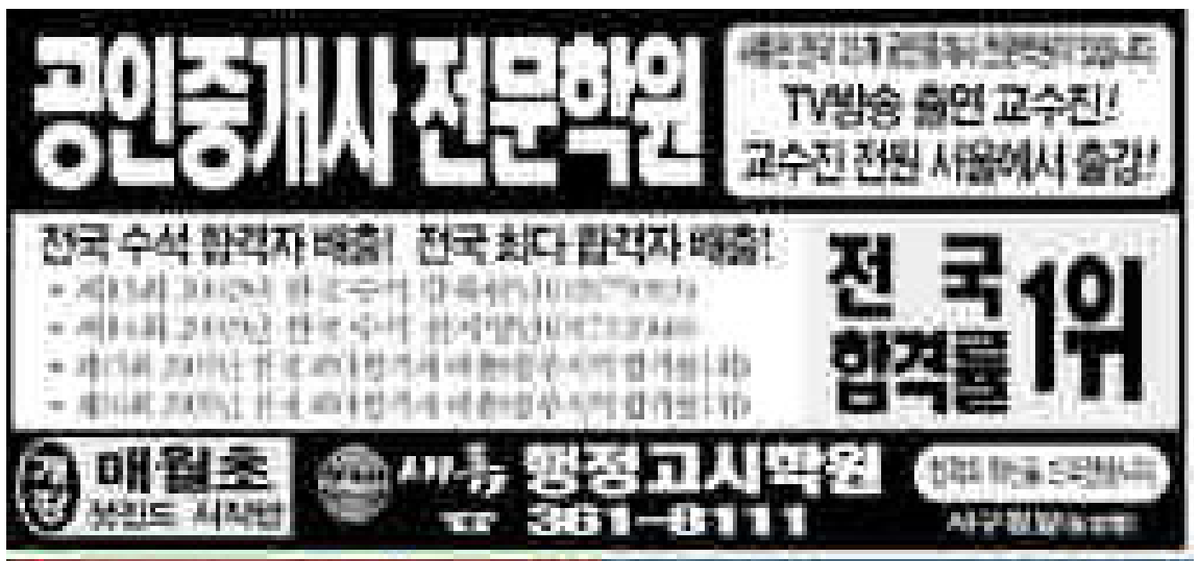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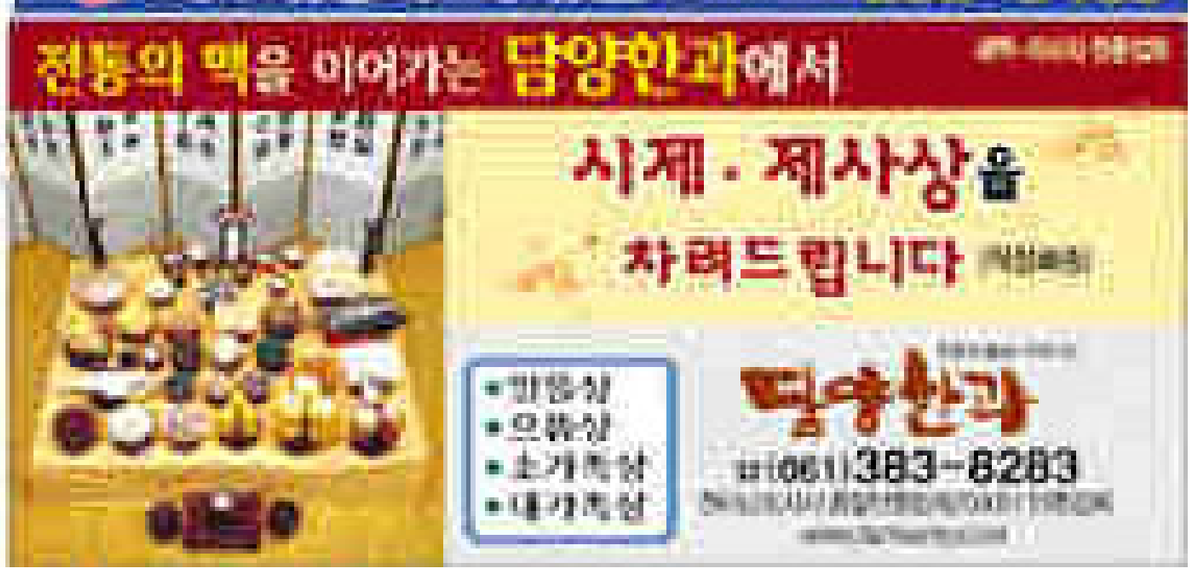
민주의 종 '5·18 타종' 무산

쌍나팔

○…광주시가 5·18 항쟁 26주년을 맞아 민주의 종을 타종하려 했으나, 5·18기념행사위원회와의 뜻이 달라 결국 불발.

○… 행사위는 "민주의 종 건립추진위에 참여한 일부 인사들이 '비민주적'이며 이들의 이름이 적힌 표지석 등은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시는 "추진위에는 5·18 관련 단체 인사들도 다수 참여했으며 일부가 당시 공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비민주적'이라는 주장은 무리다"고 반박하는 등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기념식에 맞춰 가질 예정인 타종식은 물리적 충돌 등을 우려한 광주시가 포기하면서 무산.

○…지난 2000년 11월 건립추진위가 구성된 뒤 모금을 거쳐 거의 5년만에 완성된 민주의 종은 무게 8천150관(30.5t), 높이 4.2m, 바깥지름 2.5m로 국내 최대 규모며, 새해 첫날과 5·18 기념일에 타종할 계획이었다고.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